

市民意識과 文化空間

Citizen Consciousness and Culture Space

范 澤 均

(仁川直轄市 副市長)

<目 次>

- I. 序 言
- II. 都市化의 諸作用
- III. 文化環境의 診斷
- IV. 都市空間의 創造
- V. 結 論

I. 序 言

지난 4月에서 9月까지 日本 大阪에서 열린 꽃 博覽會는 꽃, 綠陰과 人間關係, 21世紀를 向한 情感있는 會社創造라는데 뜻을 둔 大阪市 昇格 100週年의 行事였다. 情이 메마른 지금의 人間會社에서 人情을 살리려는데 뜻을 둔 좋은 選擇 課題였다.

經濟成長이 이만큼 됐는데도 政治는 말할 것도 없지만 官이나 市民會社를 莫論하고 왜 이토록 규범문란이 범람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智異山 雪嶽山까지 몸살을 해야 하는지, 오직 하나밖에 없는 生命을 내 던지고 가벌게 죽일 수 있으며 마음대로 내것과 남의것을 혼돈하는지 모르겠다. 公중전화박스, 택시, 駐車場 곳곳에서 칼이 난무하고 극악의 狀況을 쉽게 생각하는 수라장의 世態를 어찌해야 正當化 시킬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돈,

환락, 때문만도 아니다 사랑이 不足해서 人間本然의 것들을 버린 것이며 文化라는 價値있는 規範들이 우리 주변에서 不足하고 提供되지 못해서인지 모른다. 옛과 지금과 未來를 連하여 느끼고 생각하면서 희망을 안고 살수 있는 사람다운 人間形成을 爲한 刺戟을 가정에서, 거리에서, 職場에서 提供할 環境과 사람들間的 總體의 努力이 必要的 것이다.

아름다운 것, 멋있는 것, 흰하게 트인 것에서 멋있는 人間으로의 용솟음치는 발버둥을 일으키고 이로부터 삶의 價値, 喜悅, 勇氣를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날 많은 人口는 都市에서 모여 살고 있다. 都市에서의 모든 일에서 素朴한 시골스러움을 모두 잊은채 각박하기만한 都市의 여러곳에서 人性이 말라버리기에 옛 것, 트인 것, 아름다운 것, 그리고 시골스러움을 都市의 여러곳에서 提供해 준다면 各박함과 메마름에 찬 都市人에게 文化와 道德, 秩序를 안겨주는데 큰 몫을 하리라 믿는다.

II. 都市化의 諸作用

1. 肥大都市

1963年 그리스에 모인 世界 都市研究家들

은 無人島 델로스(Dellos)에서 世界는 바야흐로 都市化時代에 突入했다는 宣言을 採擇하였다.¹⁾ 勿論 1933年 아테네憲章以後 都市化는 進行되었으나 理想都市가 定着되지 못했기 때문에 新都市時代에 對備한 宣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境遇 都市化 人口는 73%로 急成長하여 住居, 給水, 交通, 社會等 諸問題에 混雜을 안으면서도 2000년까지에는 5分の 4까지 擴大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와같은 現狀은 主로 都市의 魅力 때문이다.²⁾ 都市는 資本, 勞動, 生産, 消費 등의 集積으로 産業化 條件을 가지며 就業機會가 많고 教育과 文化施設의 集中으로 子女教育, 文化享有가 容易한 點이 있고 因習, 傳統 등으로부터 自由롭게 人間的 解放으로 享樂등 自由行動과 自力開拓이 可能하다는 利點 등이 있다. 經濟社會에서의 經濟活動 追求, 文化的 側面에서의 享有가 容易하다는 長點에서 都市化가 繼續되고 있는 것이다.

都市膨脹과 文化關係는 自然 空間을 追求하는 文化 本質의 面에서 相反된 關係를 가지나 都市에서의 意圖된 空間의 創造는 文化環境을 造成, 都市化와 文化化가 比例의으로 同伴者的 關係를 가지며 文化的 集中化를 隨伴하여 왔다.

서울의 境遇, 全國의 0.6%面績안에 全人口의 4分の1을 收容하면서 藝術人 58%, 文化施設 55%로 文化가 集中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大學 26%, 銀行 38% 豫金 64.7% 등 其他도 集中되어 있다.

그러므로 文化는 都市와 더불어 運命을 같이하는 傾向인 都市의 文化化로 同質化하고 反射的으로 地域間的 不均衡을 招來 農村文化를 衰退시키고 享樂的 都市中心 文化를 繁昌시킨다.

2. 都市開發 과 文化侵害

都市는 經濟的 文化的 魅力과 生活의 安定, 快樂 그리고 自己發展의 可能性 때문에 漸次 擴大되는 結果, 流入 人口의 無計劃的 散發的 收容으로 文化的 價値能力의 喪失과 保存의 空間의 都市本來의 機能을 工業的 經濟機能에 빼앗기게 하며 歷史空間, 自然公園 역시 開發이란 名目으로 調和와 秩序를 破壞당한다. 都市膨脹은 必然的으로 住宅, 交通, 給水, 公害 등의 惡化와 疾病, 犯罪를 誘發시키며 構成員間的 不均衡 隔差로 社會的 乖離現狀을 深化시킨다.

이처럼 都市化가 宿命的 時代與件이지만 文化的 與件도 絶對的 人間欲求의 必須要件이기 때문에 첫째로 都市計劃的인 側面에서 都市化에 對備해야 한다. 베에르 루이기 네르비가 指摘한 都市는 本性에 있어서 “永續的이고 한 世代로부터 다음 世代로 傳授된다”라는 歷史的 生命體와도 같이 오늘의 必要에 依해 建設되고 來日에는 變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永續的인 基礎와 都市空間에 있어서 過去와 未來를 照鑑하는 計劃的 設計의 基礎위에서 具備해야 할 必須的 文化施設로서 重視되어야 한다.

둘째로 모든 文化가 要求한 것 중에서 아름다운 것, 審美的인 美觀上的 要求가 尊重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한 都市用役團은 “美는

1) 張明洙 都市計劃(서울: 普成文化社 1987) p.153

2) 張明洙 前掲書 p.154

社會空間 全體를 征服하는 性向을 갖는다”의 命題를 利用하였고 오러스땅 지라는 世上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藝術과 最初로 接하는 순간은 그 아이가 그 속에서 첫 걸음을 떼어 놓고 바라보는 건축된 世界와의 접촉순간”으로 보았다. 그만큼 建築된 空間의 質은 人間의 삶의 質과 密接하게 關聯된다는 點에서 美觀의 重要性이 強調되고 있다.

세째로 傳統的 自然과 文化遺產 歷史空間은 開發이란 名目으로 破壞시킬 수 없다. 自然이 神의 所産이라고 한다면 都市는 人間의 歷史의 遺産이며 先祖의 魂이 담긴 것이다. 유럽에서는 都市性格을 過去를 意味하는 象徴의 個性美에 置重하고 美國에서는 未來의 性格의 意味를 強調하고 있다. 都市計劃家들은 存置할 對象들에 特히 個性의 意味를 浮刻시키고저 고민하는데 우리는 있는것도 無視한 채로 無定見한 誤謬를 犯하지 않았는지 自問할 때가 아닌가.

네째로 傳統文化를 保存하는 博物館, 高級文化의 文化殿堂과 같은 施設도 文化擴散의 側面에서 重要하지만 山文化의 場으로서의 歷史的 廣場이 더욱 價値있는 것이다. 文化藝術의 祝祭, 歸鄉祭, 音樂祭와 같은 故鄉과의 만남을 中心으로 한 行事を 할 수 있는 施設 運動場과 같은 마당놀이가 大衆文化 暢達의 側面에서 더없이 重要的 것이다.³⁾

3. 地價에 밀린 都市計劃

都市計劃은 都市空間의 秩序를 確保할 目

的으로 住居, 商業, 工業, 綠地의 用途地域과 地區制를 두고 있다. 地域制는 土地의 經濟的 效率의 利用과 公共福祉 增進을 위하여 建築物의 用途, 形態, 高度 등을 規制하고 環境保存, 駐車, 放火 等 用途目的에 따라 建蔽率, 空地率 및 垡地空間內 配置空間의 確保를 指定하거나 制限하고 있다.

都市計劃은 어디까지나 都市機能秩序 環境的 要素의 確保를 위한 統制的이고 私有財產의 制限的 機能이고 都市設計는 都市民의 便益을 提供할 삶의 場으로 設計해야 할 最高의 藝術的 技法이 動員되어야 하는 데도 都市內部構造가 不滿足스럽고 規制自體에도 問題點이 많은 結果 韓國의 都市는 特性, 個性이 없는 劃一的 都市로 一貫되고 있다. 舊都市는 過去의 形狀을 果敢하게 바꿀 수 없다는 點도 있겠지만 新都市의 경우도 特色을 찾을만한 都市는 우리나라에서 찾기가 어렵다.

이것은 都市計劃 自體가 未來 人間의 生活 場의 造成에 두지않고 現實에의 近接함에서 오는 當世主義, 地價에 밀려서 當場 施行 可能케 하고저 하는 施行 中心主義 그리고 格式에 꼭 짜인 틀을 벗지 못함에서 오는 固定主義의 弊端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서울의 南山을 復元하고 龍山을 公園化하는 것과 같은 最小限의 다음 것들은 반드시 都市에 考慮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都市의 公園 綠地가 絶對的으로 不足하다. 公園에 關한 國民의 關心度가 높아지고 都市化의 強한 흐름에 따라 都市公園法에 의 해 指定되는 都市公園 - 어린이公園, 近隣公園 都市自然公園 墓地公園 等과 都市計劃法에 依해 設置되는 遊園地 自然公園法에 의해

3) 崔禎鎬 都市問題(서울 : 大韓地方行政共濟會, 1983)

國立公園 道立公園 等이 指定되는데 都市公園의 경우 市級公園이 83年末 現在 1人當 7.6㎡로 最小基準 6㎡를 超過하였다고 하나 都市周邊 近隣公園이 大部分의 面積을 占하고 都市心內에서는 어린이公園을 義務化한 것 外에 小公園이 없는 것이 問題가 된다. 더 根本的으로는 6㎡라는 基準自體에 問題가 있다.

뉴욕은 1830년부터 市民의 強力한 要求로 1857年 用地를 買入 10年 以上 걸려서 센트럴 파크를 完成했고 시카고는 1895年 더그라스公園에 水泳場 體操場을 附設하면서 5個의 公園을 새로이 만들었으며 우리도 朝鮮朝以後 1906年 南山公園, 倭城臺公園(1897年), 獎忠公園(1919年), 社稷公園(1922年), 三清公園(1934年)과 같은 公園들이 開園되었으나 解放後 40年동안 서울大公園, 올림픽公園, 어린이大公園을 빼놓고는 오히려 옛公園들을 蠶食하여 왔고 小公園도 鍾路4街에 廣場 파고다公園의 改修外에 空間다운 만남의 場이나 休息의 場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基準問題에 對하여도 美國은 1人當 30㎡ 獨逸은 1人當 30~40㎡ 英國은 1人當 20㎡라는 基準인데 우리의 6㎡基準 差異는 實際에 있어서 워싱턴 45.2㎡, 뉴욕 14.4㎡, 런던 25.2㎡와 서울 5㎡ 부산 5.6㎡라는 大差를 나타나게 하였다. 좁은 國土 狹小한 地域 높은 地價라는 理由 보다는 空間의 必要性에 對한 實際感覺의 缺如가 그 原因이 되었을 것이다.

그제야말로 더 어려운 苦痛을 甘受하면서 집을 헐고 새로운 空間을 確保하지 않으면 안될 時點에 다가선 것이다. 이것이 바로 今世代의 試行錯誤인 것이다.

둘째 自然環境 文化財 國防施設 等 保存地區도 그保存의 意義를 喪失하고 있다.

自然環境 그 自體는 自然的 地形과 樹木, 河川, 돌들을 包含한 自然인 것을 뜻하는데도 地勢와 地形을 變形하고 文化財는 指定財만 의 保存的 意味로 變用한 結果 環境保存이란 意義를 喪失하였을 뿐만 아니라 痕跡의 記錄이 될만한 것마저 모두 없애버렸다. 鴨鳩亭 말죽거리 광나루들이 그러하며 奉恩寺의 옛 소풍터도 保存地區의 概念을 벗어난 縮小指向的 保存에 不過하다.

세째 小公園의 形態的 問題에서 分布 規模 造形이 거의 되어 있지 않다.

小公園은 休息과 만남의 廣場으로서의 機能을 갖는데 散策 休息 만남을 위한 새로운 空間은 파고다公園 마로니廣場 그리고는 모두 山이다. 新都市가 된 江南地區마저 만남의 廣場이 거의 없다. 여기에 都市計劃의 基本理念에서부터 푸른 廣場의 概念을 새로이 導入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4. 늘어가는 地獄

生活의 便益 때문에 都市에 사는 오늘의 都市人은 늘어만 가는 地獄現象을 實感한다. 犯罪의 두려움에 떠는 恐怖의 지옥, 交通의 不便, 駐車의 곤란에서 오는 交通地獄 그리고 쓰레기와 各種公害로부터의 地獄이 그代表가 된다.

文明, 市民의 社會, 平和로 象徵되어지는 都市는 서로 性格을 달리하는 集團들의 모임에서 多樣한 社會構造와 複雜한 階層이 얽혀 生活의 높고 낮음에서 생각과 實際의 괴리가 넓어져만 가고 있다. 特히나 意識的 感覺의 괴리心理에서 發生되는 相對的 빈곤과 사치성 향락풍조의 相乘作用은 都市社會를 犯罪

의 소굴로 加速化시켜가고 있다.

果然 무엇이 이토록 生命經視, 無意識, 無感覺한 犯罪社會를 誘發케 하였는가에 對하여는 別論으로 하고라도 가정안에서, 길거리에서, 전화박스에서까지 犯罪로부터의 恐怖 두려움의 地獄에 사는 都市人이어서야 되겠는가. 過度한 個人化, 過度한 사치, 過度한 浪費가 犯罪를 유발하고 더욱 犯罪를 보고도 말리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都市人이라면 우리 모두가 자승자박의 責任도 함께 져야 할 때에 이미 와 있는 것이다.

交通地獄 또한 日常生活의 地獄이 아닐수 없다. 所有比率로 보면 外國 例에 미치지 못하다 하나 人口의 集中 좁은 땅 좁은 도로울에 比하면 더이상의 車輛을 許容하지 않는데도 車는 繼續 늘어나고 大衆交通 手段은 地下鐵을 包含하여 不便과 번잡의 連續線上에서 거리와 空間은 駐車場이 되고 駐車가 새로운 交通難을 유발한다.

都市의 荒廢를 工業化와 近代化 때문이라 한다면 自動車는 都市空間을 占有하는 空間奪取者이다. 一般的으로 乘用車의 底面積은 7.8㎡이나 實際 必要한 駐車場 面積은 駐車施設을 包含 25㎡~30㎡, 여기에 더욱 집 주변에서의 駐車場, 勞務地駐車場, 禮式場, 食堂, 百貨店, 레저場所 등 보통 車 1臺當 3個所의 駐車空間이 必要하므로 90㎡가 車에 占據되거나 面積이 必要하게 된다. 좁은 空間 좁은 道路에서 1坪 程度 面積에 세울 小型車가 必要할 뿐아니라 마이카 時代에서 都市內 平均 40km 時速 年間 2萬km 走行記錄으로 볼 때 年間 500時間의 乘車時間인데 이는 年間 8760時間의 5.7% 밖에 안되는 結果로서 殘余 94%의 時間은 어데인가 세워 두게되는데

이 얼마나 땅을 많이 차지하겠는가. 그로 인한 文化의 박탈성 용돈의 浪費性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다.

交通地獄의 問題는 政策的 次元에서도 問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自動車稅 히발유消費稅 道路交通負擔金등 方法에 依한 重課稅 檢討 問題, 駐車場確保制와 같은 占有場所의 事前確保問題, 不法駐車에 대한 強力한 단속, 無制限의 生産 販賣와 같은 全般的 事案別 檢討가 왜 안되고 있는지 理解가 안가는 面도 많거니와 더욱 最近 強化된 駐車場法上的 義務台數도 實際駐車量 以下여서 不法 유발적 要因을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쓰레기담이름을 爲始한 公害地獄 역시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工業都市에서는 언제나 공기, 소리, 廢水가 密集된 住居에서는 수많은 쓰레기를 배출한다. 공기, 물, 쓰레기는 雪嶽山, 智異山을 덮쳐서 사람에게 依해 더럽혀지고 사람을 病들게 한다. 깨끗한 곳이 없다. 數많은 쓰레기담이름 버릴 곳이 없다. 언제 病든지 모르게 病들어 가고 더러워진 都市空間은 都市人의 마음을 더럽혀서 깨끗한 마음, 희망과 勇氣를 시들게 하는 地獄으로 몰아 넣고 있는 것이다.

Ⅲ. 文化環境의 診斷

1. 文化認識

우리 人間은 生物學的 存在이면서 經濟的 存在로서 어느 社會에서나 共通性을 지닌 普遍的 存在이면서 또한 文化的 存在로 살고 있다. 普遍的存在·生物學的 存在인 人間은

人間相互作用에서 組織化 分業化의 自然的 共通的 社會現象으로 나타나서 相互作用의 方法이나 樣式을 통해 人間의 行爲를 集團別로 類型化 시킴으로써 人間行爲의 差異를 갖게 하는 文化的 存在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文化는 人間行爲를 說得力 있게 說明할 수 있는 強力한 概念으로 Leslie A. White는 人間의 行爲는 全的으로 肉體밖의 文化的 傳統에 依해서 決定된다.⁴⁾라고 하는 文化的 函數論을 펴서 그렇게 行動하게끔 特殊한 文化的 傳統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說明한다. 여기에 우리나라 尹泰林은 文化란 한 社會의 生活樣式이며 하나의 形態로서 本能이 아닌 學習된 行動의 結果로 이루어진 產物이고 그 社會를 構成하고 있는 成員들에 의하여 分割傳達되어 지는 것⁵⁾이라고 보고 있으며 白完基는 特殊 集團의 構成員들에게 共有된 價値觀, 思考方式, 態度 및 信念體系의 總合體⁶⁾로 보고 있다. 또 朴東緒는 知識, 技術 등 經驗的인 것과 모든 社會의 취향을 基準으로 決定하는 價値와 같은 審美的인 것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提示하는 當爲性과 같은 規範的인 것⁷⁾을 들고 있다.

文化人的 數學的 觀點과 社會學的 觀點에서 文化를 보는 Dwight Waldo는 文化는 각

기 다른 獨特한 思潮, 象徴, 類型화된 行動의 總體로서 이는 各各 分離된 것이면서도 相互作用을 하는 關聯性을 가진 部分들로 構成된 全體로서 갖는 “人間集團의 生活樣式”⁸⁾이라고 보고 古典的 見解로서 Edward B. Tylor는 文化란 社會의 한 構成으로서 人間이 獲得하는 知識, 信賴, 技藝, 道德, 法律, 慣習 및 其他 能力이나 慣習들을 包含하는 複合體⁹⁾라고 包括的으로 定義하였다.

이와 같이 文化에 대한 概念認識은 人類文化學的 見解에서 文化的 類型, 社會構造, 文化的 機能, 文化的 決定論 등으로 꾸준하게 發展되어 왔다.

一般的으로 文化的 概念을 認識함에 있어서 社會의 構成要素들이 特定社會의 成員들에 의해 共有되고 傳達되는 學習的 行爲와 그 行爲結果들의 全體의 現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現象은 하나의 文化를 構成하는 多樣한 行動과 行動의 結果들이 하나의 類型화된 全體로서 組織되어 있음을 意味하는 다음 네가지 範疇로 包括할 수 있을 것이다.

(1) 어느 한 時代에 걸쳐 모든 人類에게 共通으로 찾아볼 수 있는 生活方式이나 樣式

(2) 서로 相關性을 갖는 여러 共同體나 社會속의 한 小集團의 特有的 生活樣式

(3) 한 共同體社會에서의 特有的 行動樣式

(4) 有機的이고 複合的으로 이룬 社會構成員들의 特殊한 行動上的 特色

4) Lelie A. White, Cuturology, in David L Sills(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Macmillan Company, 1974. p.548

5) 尹泰林 韓國人的 性格(서울: 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64) p.49

6) 白完基 韓國의 行政文化(高大研究叢書 16, 高大出版部 1982) p.3

7) 朴東緒 새時代 行政文化的 創造와 公務員의 行態(行政發展 심포지움, 중앙공무원교육원 1982) p.172

8) Dwight Waldo public Administration and Culture, Doscoe C, Martin(ed)(New York, Syruacuse Univ, Press 1965) op cit p.39

9) Edward B.Tylor, Primitive Culture;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ethodology, Philosophy Religion, art and Custom(London;John Murray, 1871) p.1

이와 같이 文化란 여러 時代에 걸쳐 持續的으로 行하여지고 共有 되어온 하나의 行爲樣式이며 倫理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自體가 하나의 틀과 패턴을 갖고 삶과 行爲樣式的 展開에 따라서 變化 發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人間은 個別的으로는 모습이 다르고 價値觀, 性格, 行動이 다르지만 集團的으로는 거의 同一한 方法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믿고 行動하게끔 類型化 될 수 있는데 이것이 文化現象으로 나타나고 여기에서 特定人이 特定社會의 構成員으로 結束시켜 주고 民族이라는 構成員과 같은 意味를 確認시켜 주며 다른 構成員과 區別시켜 주는 役割도 함께 하여 文化的의 同質化와 異質化를 構築하게 한다.

또한 人間은 類型화된 價値나 思考에 의한 行動樣式에 따르도록 意識的으로 無意識的으로 壓力을 받으며 類型화된 行動樣式을 創出하는데 이것이 “社會的으로 價値화된 習慣 (social valued habits)¹⁰⁾으로서 價値가 包含된 慣例를 文化라고 보는 것이다. 人間の 行爲를 說明하는 概念으로서의 文化役割에 대하여 白完基는 첫째 文化는 人間の 行爲를 正確하게 理解하고 豫測하는데 最善의 方法이며 둘째 人間行爲를 規制하고 그 容納與否를 判斷하는데 文化가 行爲의 規制役割을 하며 셋째 모든 現實은 文化的의 스크린을 통해서 認識되고 評價되므로 이는 文化的의 現實이라고 할 수 있으며 道德的 價値도 文化를 前提로 한다. 넷째 文化는 相對方의 行爲가 어떻게 나

타날 것인가를 期待하고 豫測할 수 있는 期待構造(a structure of expectation)¹¹⁾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文化는 相異한 集團끼리 共存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하여 特定集團의 文化에 대한 認識과 理解를 통해서 서로 어울리고 理解를 增進하고 役割를 한다”라고 列舉하고 있다.¹²⁾

結論的으로 많은 사람들은 文化를 마치 精神的의 所產物중에서 崇高한 藝術作品이나 偉大한 學問的 偉業으로 생각하는 傾向이 없지 않으나 文化는 결코 崇高하고 偉大한 精神的인 것만을 가르키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生活樣式 一般을 自稱하는 것”¹³⁾이며 人間の 知的 審美的 그리고 道德的 根源이 되는 價値의 具現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衣食住의 經濟活動 感情의 表現, 人間關係의 善惡을 가리는 모든 行動이 文化的의 틀에 의해 左右되는 것이라고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2. 文化的의 變動

近來의 韓國文化는 政治, 經濟, 社會의 急速한 變化와 함께 文化的의 側面에서도 斷絶과 衝擊, 屈曲이 겹치는 文化的의 空間이었다고 할 것이다. 日帝 36年의 植民文化政策과 그 後의 殘滓를 씻기도 前에 開放的 西歐文化의 流入, 國土分斷으로 인한 異質化와 戰爭, 그리고 急速度의 社會變化는 우리 固有 文化를 찾고 그동안의 流入文化를 評價하는데 그 價

11) Clyde Kluckhohn, op.cit p.69

12) 白完基 前揭書 p.3~8

13) 李萬甲 유네스코 자카르타-文化政策에 關한 文化 長官會議(1973. 12. 10)

10) Clyde Kluckhohn, Culture and Behavior(Free press, 1962) p.25~29

值基準을 定立하는 데도 汲汲할 수밖에 없었던 時代狀況을 겪어왔다.

먼저 日本文化는 文化的 植民政策이 日本文化에 대한 感梁度를 높여주고 言語와 生活樣式을 包含하여 두 나라가 類似한 文化形態를 取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日本이 저지른 罪惡에 抵抗하는 倫理意識의 反感으로 表皮的 感賞의 文化, 低質의 大衆文化形態의 것에 머물렀다고 보아지고 美國文化는 肯定的 側面에서 普遍主義, 實用主義, 個人主義의 價値¹⁴⁾를 심어준 反面에 普遍的 價値인 自由가 無秩序와 放縱, 個人主義가 利己主義 및 共同意識의 弱화, 實用主義가 拜金主義 浪費 및 消費風潮 그리고 國際主義, 世界主義가 脫民族的 無國籍意識을 낳게 한 것이라고 金泳謨는 論한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몇 가지 文化現象으로서의 問題들을 보면

(1) 文化的 遲滯現象

現代社會의 技術 爆發, 人口의 大移動, 知識의 爆發, 社會制度上的 緊張과 葛藤등 變化過程과 日本과 美國의 接觸에서 文化는 이를 追跡 乃至 適應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遲滯現象에 머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商業主義, 消費文化的 擴散

지난 經濟成長의 過程과 美國風潮는 文化 消費性向을 加速化 大衆文化的 消費市場을 擴大시키고 商業主義的 市場擴大는 消費欲求를 刺戟, 不必要한 必要를 享有토록 한 結果 商業文化的 氾濫으로 文化創造의 彈力性을 喪失케 하였다.

(3) 文化的 劃一化

지난 40年동안 產業化, 都市化는 地域共同體를 解體하는 傾向으로 나타나 地域共同體를 바탕으로 한 民衆文化는 衰退의 高비를 안고 反面에 메스미디어의 大衆普及에 따른 消費文化的 膨脹은 文化的 生産과 消費가 分離된 大衆文化的 形態로 登場, 文化的 本質面에서 規格的이며 興味中心의 演出作家에 의해 劃一되므로서 文化的 多樣的 選擇의 機會를 박탈시키고 있다.

(4) 文化的 集中化

모든 文化는 中央集中化로 매스커뮤니케이션, 文化團體와 施設, 文化藝術活動, 高等教育機關이 서울 中心 大都市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地方文化的 統合에서 이룩해야 할 民族文化가 서울文化로, 地域間 階層間에 不均衡現象을 가져오게 하였다.

(5) 文化活動의 制約과 爆發의 亂脈

그동안 反共理念과 關聯한 言論, 出版, 報導등에서 自由로운 文化活動은 檢閱등 形態를 통하여 相當部分 統制되었다. 國民各自의 價値意識은 人間本然의 享有하여야 할 內容이고 그 表現과 創作이 國益을 害하지 않는 것이라면 自由로운 것이어야 創作의 發動은 더욱 그 妙를 期待할 수 있는 것으로 民主化時代와 關聯, 自由로운 雰圍氣로 풀어짐에 따라 暴發의 亂脈相을 빚고 있다.

(6) 主體意識의 混亂

文化는 人間個性에 있어 오랜 時間에 걸쳐 祖上으로부터 傳承되어 어린 時節부터 社會化를 거쳐 內面화된 것으로 이들 構成員의 한 單位가 共通言語, 共同生活樣式같은 表現에 의한 藝術 宗教들의 價値觀에서 같은 意味體系를 갖는 集團으로 形成, 마을 成員에서

14) 金泳謨 美國文化的 韓國社會에 있어서의 土着化 問題(새교육 1971) pp.188~195

民族 成員을 이루며 이들 民族은 傳承의 價値體系를 바탕으로 社會變動에 따라 새로운 價値를 受容, 生成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의 社會變動에 있어서 傳統的 樣式에 대한 妥當性的 檢討없이 異質的 價値의 受容으로 우리는 行動指針을 喪失, 主體感(sence of Identity)을 갖지 못하고 主體性的 危機와 統合성을 잃은 社會的, 文化的 混亂을 겪으게 된 것이다. 여기에 文化發展에 따른 韓國의 새 文化創造의 課題가 提起되는데,

첫째, 社會變動에 따른 文化發展은 必然的인 것이며 文化發展은 外來文化와의 調和속에서 成熟되어야 한다. 그러나 外來文化는 土着文化·固有文化·傳統文化的 바탕위에서 選擇의으로 受容하되 傳統的 것과 調和融合한 第3의 固有文化로서 創造되어야 하고 庶民文化, 氣層文化에의 受容이 重視되어야 한다.

둘째, 外來文化를 受容하려면 먼저 自體의 것부터 다시 定立하고 近代化하는 文化的 適合性·正體性·統合성을 診斷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傳統文化에서 宗教, 藝術, 言語, 社會的 規範의 優秀한 樣式과 價値와 思想들을 發掘하여 西歐文化에서 밀려나간 部分에서부터 내 固有의 멋을 다시 찾는 傳統文化的 正體를 定立시키고 다음으로 時代的 社會에 適合성을 維持할 文化로서 傳來의 것을 近代化시켜 가는 일이다. 農耕社會文化的 現代產業 文化化는 이 時代에 있어서 當然한 것이며, 우리 文化的 近代化 作業 없이는 오히려 우리 것을 송두리채 喪失하는 結果를 招來하기 때문에 우리文化的 뿌리를 담은 近代化된 衣食住, 生活, 思考와 價値意識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셋째, 近代化 沮害要因으로 作用했다고 보는 傳統文化的 否定的 要素 - 非合理的 宿命論의 人生論, 不平等權威主義, 家族主義의 派閥의 要素들에 대한 肯定的 理解側面的 發掘과 現代的 調和를 圖謀할 必要가 切實하다. 否定은 否定的 魂을 날기 마련이며 肯定은 아름다운 祖上의 일을 되살리는 것이라는 點에서 傳統的 開化的 意味를 強調하고 싶은 것이다.¹⁵⁾

3. 아파트 住居의 得과 失

언제부터인지 좁은 땅에서의 人口 受容方 案으로 아파트가 즐비하게 서게 되고 앞으로 繼續될 것이다. 國民 1人當 可用面積이 770坪밖에 안되는 우리의 國土 與件으로는 不得已한 것이지만 아파트生活에서 社會的, 經濟的 價値는 勿論 우리 固有의 意識 및 生活文化面에서 大變革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는 便利하다. 할 일이 없다. 食料品 심지어 찌게거리마저 配達하므로 淸掃 以外 할 일이 없지만 우리 韓國 사람에게 큰 보배인 근면성을 잃게 한다. 게으름을 길러내는 工場과도 같다. 더욱 좁은 空間에서 唯一하게 모일 수 있는 곳은 TV앞 뿐인데 그러나 TV 앞에서도 채널 때문에 合意가 안된다. 新舊世代를 離間시키는 곳, 이로부터 家族 서로間에 和合이 무너지고 밖으로 나간다. 舊世代로 指稱되는 老人은 갈 곳이 없다. 아늑한 가정이란 분위기, 우리의 傳統文化樣式은 무너지

15) 李萬甲 文化政策에 관한 文化長官會議 1973. 12. 於 자카르타

고 있다. 個人主義의 싹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파트文化의 더 큰 오류는 情緒를 갖지 못하게 한 構造的 建造物에 있다고 본다. 우리 人間은 늘 생각하며 살고 살며 생각하는 갈대외도 같은 데 생각하는 空間, 이웃과의 空間,棟間의 人間交流나 自然과의 속삭임, 아기자기한 멋들을 提供해 주지 못한 데 問題가 있다. 그러기에 人情은 메달라 간다. 또한 이웃집의 消費性向은 내 집에 分數以上の 浪費를 촉발시키며 이웃과의 競爭에서 참고 견디는 忍耐力의 自制에 限없는 苦痛을 안겨다 준다.

오늘의 아파트는 生活의 便益, 좁은 땅의 利用率 增大, 熱利用의 效率化등 長點도 많으나 人間性的 斷絶이란 큰 問題를 낳고 있다고 보아서 空間的 構造 改善이 있어야 하겠다.

4. 文化行政의 課題

文化行政은 經濟의 工業化, 社會의 都市化, 政治의 市民化에서 誘發되어 都市社會의 成熟과 더불어 隨伴되는 市民自治, 市民文化의 形成欲求에서 出發한다.

그리하여 市民自治의 原則, 基礎自治團體 主導의 原則, 行政革新의 3原則¹⁶⁾을 文化行政의 原則으로 한 政治, 經濟, 社會에서의 市民 目標가 바로 文化目標로 提示된다. 그것은 곧 文化가 삶의 質을 向上시키는 것이라는 點에서 더욱 人間疎外로부터 人間性을 찾고자 하

는 欲求에서 오는 것이며, 文化의 形成, 育成 指導에 行政于與의 從來의 方式을 行政의 文化化라는 새로운 內部的 體質革新을 통해 市民自治에 의한 市民文化水準의 向上을 文化行政의 課題로 登場시킨 것이다.

(1) 行政의 文化化 視角

行政의 文化化에 대한 從來의 行政의 次元 이던 因襲의 行政, 官僚의 文化行政, 法律的 規制의 狹義의 文化行政에서 人間無視, 人間 喪失에 對抗한 人間性的의 回復을 爲해 地域民의 自立的 自治體가 追求하는 文化創造에 自己改革한 行政이 參與하므로서 市民의 價値 創造具現의 機能을 獲得¹⁷⁾하자는 것으로 주로 行政의 改革 次元에서 다음 내용을 들고 있다.

(가) 固定概念의 排除와 柔軟한 思考

法令 前例에 拘束되지 않고 人間적으로 自由로운 視角에서 現狀을 보고 地域의 새로운 政策課題를 찾아서 풀어간다.

나. 積極的 創造的 意慾

위로부터의 指示나 他에 依支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서 解決하는 未來指向의 姿勢와 意慾을 갖는다.

다. 獨善의 排除와 綜合視角的 行政

固定分擔의 役割에서 綜合文化行政 視角으로 轉換한다.

라. 行政目的의 反省과 自治로부터의 行政을 위한 行政에서 自主的 主體性, 市民自治體와 共同體의 體制로 行政을 文化的으로 革新하며 個性을 살린 綜合行政體制, 市民自治體를 創造主體로 하는 行政의 機能으로 轉換하도록 한다.

16) 松下圭一, 文化行政—行政의 自己革新(森啓, 松下圭一編著 1981, 學陽書房) pp.9~10

17) 田村明, 文化行政(東京, 學陽書房, 1981) p.39

(2) 行政의 文化的 展開

行政의 文化化 運動은 生活文化에서부터 시작한다.

1段階에서는 文化的 意味를 담은 意識開發이다. 이를 爲하여 行政 全般에 있어서 文化 意識化, 教育에서의 文化強化 市民에 대한 文化精神啓發로 文化意識을 全分野에서 심어간다.

2段階로는 文化的 場을 만들고 文化와의 接近機會를 擴大한다. 文風運動, 廳風運動과 같은 文化그룹과 포스터, 印刷物, 施設物에 文化的 디자인, 文化1% 投資運動으로 文化 價値形成의 場과 機會를 提供한다.

3段階에서 文化目標을 設定 文化的實踐階段에 들어간다. 文化目標은 既存 文化的 要素의 바탕위에서 地域自治體의 役割과 責任을 살려 地域的 共通視角의 要求條件을 最大로 하는 目標로 그 實際에서 檢討되는 事項들은;

가. 行政의 文化化

“行政에 文化를”, “文化에 行政을”, “文化를 爲한 1% 投入 시스템”과 같은 表題로 行政自體의 姿勢, 體質의 改革, 디자인, 아이디어 行政의 積極化, 廳內自體에서의 文化育成(親切, 情緒涵養, 體質), 施設物의 1% 文化施設 등으로 地方文化 受容體質을 構築한다.

나. 民間과의 協同體制

文化財團, 文化振興基金, 文化協會를 통해 環境保全, 福祉, 學習, 健康, 地域産業등 地域 文化 創造의 意見을 受容하여 共同 對處한다.

다. 生活文化的 創造

삶에 넘치는 기쁨, 健康한 몸과 마음, 健康한 生活, 바른 育兒, 꽃과 綠陰이 넘치는 環境과 함께 條件을 充足시킬 文化藝術施設과 거리, 運動條件, 娛樂環境등을 造成한다.

라. 傳統的 都市景觀

傳統的 地形, 地物, 歷史記錄의 個性을 살려 傳統象徴을 調和한 美的 景觀 確保로 歸屬意識, 自負意識을 高揚한다.

마. 都市公共空間의 創出

鄉土風景을 살리는 鄉土設計로 歷史資料인 樹木, 施設物, 地場 材料에 의한 藝術空間을 넓혀 거리에서, 옛 地形에서, 옛 施設物에서 라는 空間의 藝術性을 높인다.

바. 文化産業化

地域特化産業을 地域産業으로 育成, 生活習慣에서의 文化를 産業化하고 옛 産物을 博物館에 裝飾한다.

사. 歷史性, 藝術性의 接近施設

民具, 民畫, 歷史記錄의 施設物, 作品, 彫刻들을 거리에 또는 文化公園化하여 傳統과 藝術과의 接觸機會를 擴大한다.

이토록 行政의 文化的 展開는 自然과 傳統의 바탕위에서 生活文化에서의 틀을 中心으로 한 意識啓發 文化的 場의 提供이나 各種 藝術, 創作活動들을 支援하여 文化的 現象들과 더불어 呼吸하고 그 속에서 정신적 풍요를 갖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行政의 文化化 視角¹⁸⁾은 한 次元 強度 높은 自治民主意識을 高揚한 文化行政, 精神文化에서 人間性을 積極적으로 回復하는 새로운 價値具現을 目標로 文化意識化를 위한 體制 및 事業施設들의 文化的 轉換을 要求하고 美觀의 創造性의 強力한 表現을 통해 마음의 풍요에서 人間性의 回復을 求하려는 文化運動으로 轉換하려는 것이다.

18) 森啓, 上田篤 編著, 行政의 文化化 pp.226~268

IV. 都市空間의 創造

1. 環境과 空間

近代都市의 機能을 居住, 勞動, 慰樂, 流動으로 본다면 都市空間은 慰樂機能을 가지며 그동안 生産, 居住空間의 開發에 置重한 나머지 餘暇活動의 空間의 價値機能은 疎忽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값비싼 집, 값 있는 位置는 公園近處나 餘暇空間이 있는 곳이다. 創造的 社會, 健全한 社會, 幸福한 社會라는 都市 建設의 理念을 살리기 위해서는 再生産을 爲한 레크리에이션 空間이 없어서는 안되며¹⁹⁾ 이 空間은 利益指向 住民들의 만남, 옛 것을 되찾는 記憶의 場, 肉體의 精神의 心身의 단련과 情緒를 涵養시킬 場으로서의 空間, 公園, 地形, 地勢들일 것이다. 自然과 人間性 回復, 地域歸屬意識 涵養欲求是 人間과 自然의 共生關係에서 強力한 意味와 效果를 가지며 公園樹木에서의 酸素供給(50年 활엽수에서 12人分の 酸素 供給), 먼지 吸收(활엽수林 ha當 68屯, 침엽수 32屯) 온 습도조절, 氣象防災, 景觀造成 等 效用 뿐 아니라 慰樂空間으로의 機能이 더욱 強調되고 있다. 새로운 活力, 強力한 精神力을 生成시킬 空間의 意味는 요사이의 時代狀況에서 絶對 不可缺의 것이다.

2. 美的 公共空間의 創出

空間은 線과 面이 交叉되면서 展開된다. 좁

은 길을 따라 걸어가다가 넓은 空間을 만났을 때 開放感을 주며, 連續된 좁은 길은 閉鎖感을 준다. 맞닿는 空間의 廣狹, 숲속의 明暗, 驛音과 靜寂과 같은 交叉에서 變化를 주는 것과 같이 建築物에서도 模樣, 素材, 氣候, 方位 等이 그 地域의 自然環境의 特質, 歷史, 文化, 文明 등의 社會環境의 與件과 適合하게 갖추어져야 한다.

美와 藝術을 同一概念으로, 文化를 人間生活의 全體像으로 表現하는 것과 같이 各各個體의 形象들이 地帶와 環境의 與件과의 適合性을 求할때 美가 나타난다. 地面에서의 空間構成도 大와 小, 弱과 強의 리듬으로 構成되어야 共感과 愛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永住意識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空間構成은²⁰⁾ 첫째, 차분하고 安定된 空間이어야 하며 둘째, 自然環境에 歷史環境을 살리는 魅力을 創出하여야 하며 셋째, 環境에 넘치는 모델住宅地, 綠地都市 네째, 아름다운 숲과 물을 함께 한 마음과 마음을 잇는 거리, 밝은 거리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美的 公共空間의 創出은 다음과 같은 여러 形態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社會, 公共性이 강한 過密地帶에 專用 步行路를 만든다.²¹⁾

(2) 步行路에 多樣한 空間을 接觸시키며 直線路, 曲線路와의 接觸, 廣狹의 步道를 演出시킨다.

(3) 步行路의 側面에 線, 面의 綠地空間을 만들고 空間形態에 따라 물이 흐르게 하며 彫刻, 偉人像, 噴水, 심볼塔 등을 配置한다.

20) 松下圭一, 森啓, 文化行政(東京:學陽書房, 1985) pp.87~92

21) 松下圭一, 前掲書 pp.260~262

19) 康炳基, 金源, 李鍾益, 都市論(서울:法文社 1984)

(4) 道路邊 住宅에는 前庭을 두게 하고 公共建物は 前面에 넓은 空間을 두게 한다.

(5) 群衆이나 騷擾속에서 孤獨을 즐길 수 있는 코너를 만든다.²²⁾

(6) 길을 쉽게 찾게 할 軸, 塔, 彫刻物 또는 標示板을 設置하며 車道中央의 分離線을 넓게 하여 車의 行列을 疎外시킨다.

(7) 路角地帶의 만남, 休息의 場이 될 空間을 많이 둔다.

(8) 公共建物の 移轉, 蹟地는 原則的으로 公園化한다.

3. 都市美의 創造

都市美는 自然美, 人工美, 精神美의 3要素로 構成된다. 또한 都市美는 文化를 느끼게 하는데 뜻이 있다.

文化를 느끼게 하는 意識啓發運動, 文化享有力量의 提高를 통해 共通의 느낌을 갖는 市民水準에서의 都市美는 前述한 文化空間, 自然空間, 街路美의 構成에 接觸되는 建築의 美에서, 그리고 建築物을 平和롭게 象徵할 色彩와 照明에서 美的 效果를 찾아야 할 것이다.

더욱 人工美의 훌륭한 表現은 平面과 立體의 配列의 調和에서, 精神美는 個別的으로나 集團的으로나 차분함에서 求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美的 要素들을 綜合的으로 反映시킨 文化都市의 모습을 想定하면서 다음 要件들이 갖추어지기를 願한다.

(1) 行政에서 文化力量을 強化하여야 한다. 行政의 文化化概念에 立脚한 모든 行政에

서의 文化性 投入, 모든 事業施設에 對한 文化性 投入 등의 原則에서 생각하고 反映시켜야 앞으로의 市民欲求에 對應할 수 있다. 都市의 文化行政은 歷史環境과 自然環境을 文化物과 連結시킨 풍요한 都市環境을 創造하는데 두고 모든 施設, 都市의 構造를 人間中心으로 構成시키는데 重点을 둔다.

豐富한 文化空間을 만들기 위해 公共建物を 移轉, 撤去한 蹟地는 優先的으로 公園化하고 周邊과의 連結道路를 만들고 또한 公共建物 앞과 주변에 많은 空間을 確保한다. 또한 建築法을 改正하여 건폐율을 줄이고 公園率, 步道率을 높인다. 建築許可時 道路面의 前庭을 最大限 確保하도록 調整할 수 있는 環境設計制度, 景觀條例 등을 制定하고 권장과 義務의 이행을 併行한다. 1% 文化投資制등은 그한 例이다.

都市計劃事業때마다 文化投資를 擴大한다. 道路開設때는 專用步道, 中央分離線을 擴大하고 街路照明, 道路公園들을 擴大하며 綠地, 步道, 照明施設 및 기타 施設들이 하나의 融合體가 되게 한다. 道路 橋梁, 樹木들이 藝術作品化한 人工美를 表現하게 한다. 步道와 小公園 施設投資를 擴大한다. 都市의 象徴物을 세워서 市民意識을 응집시킨다. 즉 뉴욕의 自由의 女神像, 摩天樓, 샌프란시스코의 金門橋, 파리의 에펠塔 등과 같이 그 都市民의 全體 意識을 結集시켜 널 상징물을 세운다.

歷史環境地區에 對한 文化的 再開發事業을 強化 實施한다. 傳統文化地域의 復舊, 侵害公園의 原狀回復, 有名遺蹟의 回復과 保存, 環境創造目的을 自然에의 復歸와 原形의 調和 등의 方向으로 處理한다.

(2) 人工美를 最大化할 造型技術의 開發과

22) 張明洙 前掲書 p.350

綜合審議制의 導入이 必要하다.

建築設計, 建築技術에서 多樣性 洗鍊性을 確保할 수 있도록 一定建築物以上の 것과 公共建物에서부터 位置, 方位, 構造 등에 對한 規制를 強化하거나 專門家, 市民이 參與한 審議制度를 維持함이 바람직하다.

照明에서 道路, 河川 地域 등의 公共性照明은 當該市에서 其他 個別的, 私의 生活照明은 各各 그 管理者가 文化水準을 維持하는데 必要한 照明規定을 設定한다.

色彩는 都市마다 特徵的 色彩와 個別的 色彩의 調和가 밝고 부드러우며 마음에 情感을 줄 수 있도록 都市의 基本色彩를 選定하고 個別的 施設物의 色彩는 施設物의 骨造構成後 또는 事前指定制로 指定할 수 있을 것이나 色彩만의 專門的 審議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기타 噴水, 街路樹, 河川, 案内板 등은 都市美를 創出하는 施設物들이다. 이들의 施設 하나하나가 주변과의 環境與件에 따라 그 構造의 特性을 달리하고 施設資材, 形態, 色彩, 規模 등의 藝術性이 곧 美를 生成하도록 規格화한다.

(3) 1% 文化性投入의 方法을 어떻게 導入하느냐의 問題이다. 文化性의 內容은 建築物의 構造와 그 주변처리, 色彩와 裝飾, 美術品의 設置와 같은 方法을 單一 또는 複合的으로 投入할 수 있을 것이나 施設全體에 複合的 藝術性의 附與가 바람직하며 內部보다는 外部空間의 景觀的 設計 - 造園과 彫刻, 時計塔, 街路樹, 연못과 噴水가 適切하게 調和되고 建物周邊에서는 花壇, 壁面美術, 步道面裝飾, 內部的 壁面美術, 色彩들이 多樣性속에 秩序와 整然性을 確保할 때 美의 感覺이 살

아나게 된다.

아름다운 것은 洗鍊된 藝術에서 시작하고 아름다움은 環境과의 調和로서 그 效果를 發揮할 수 있고 열린 스페이스는 都市全體의 活力素가 되며 都市美의 根源을 이룰 것이다.

結局 都市는 面과 形態的 質 그리고 多樣하고 複雜한 것에서 調和로운 새로움이 強하게 認識될 때 興味와 즐거움을 주며 個別的 空間과 公共的 空間과의 斷絶的 連續的 만남을 통해 造型美를 더욱 크게 나타나게 할 것이다.

V. 結 論

1960年代 後半以後 近代化로 비롯된 産業構造의 改編과 6共和國 以後의 民主化 바람은 우리人間의 삶의 方式이나 規範體系를 包含한 社會 全般의인 구성구석에 큰 變化를 가져다 주고 있다.

잘 살기 위해 産業을 이르고 世界로 무대를 하는 活動을 넓혀가는 過程에서 傳來의 家庭生活樣式을 비롯한 道德, 信念, 價值體系의 混亂은 人間喪失이란 人間本然의 體系規範을 解體시키는 危險水準에 와 있거나 人間相互의 乖離의 罅을 벌여 놓고 있는 것이다. 民族의 自尊과 自彊意識, 學文과 藝術 崇尚의 선비정신, 家門中心의 強力한 成就動機들이 近代社會를 이만큼 富의 社會로 이끌어온 것도 事實이나 反面에 物質主義의 價值觀의 上向에 따른 傳統과 外來文化와의 사이에서 適合性을 찾지 못한 文化遲滯現象속에서 商業主義의 消費文化는 擴散되고 人間疎外의 葛藤을 심하게 겪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都市

에서만이 快樂과 富를 享有할 수 있으며 權勢와 情報과 資金動員이 容易하기에 밀려드는 人口에 땅은 좁아지고 시멘트의 숲을 爲하여 自然은 滅失當하고 文化環境은 갈수록 浸蝕되어만 간다. 自然과의 共存共榮하는 環境的 造成이, 잃어가는 人間의 個性을 되돌려 주는 길이다는 觀點에서, 都市에서 人間空間 즉 人間의 本質을 提起케할 文化空間을 造成하여 自然의 環境에의 復歸를 통해 物質文明의 騷音과 疲勞로부터 自己認識의 機會를 附與받고 自然空間, 公共空間, 建築空間의 調和로운 配置에서 綠陰과 꽃, 물의 흐름에서 새로운 生命의 歡喜를 求해 봤으면 한다.

지난 大阪에서의 未來 都市空間은, 숲을 채운 - 「山の 區域」, 꽃과 綠陰이 가득찬 파라다이스, - 「들의 區域」 그리고 華麗함을 거누는 未來都市 - 「거리의 區域」, 놀고, 먹고, 뛰어 놀 娛樂施設들을 엮어 놓은 것이다. 삶의 質 向上이 文化 指向의 目標라면 우리 人間 生活에서 이세상의 모든 煩惱를 씻어 줄 歷史와의 만남, 自然과의 만남, 아름다움과의 接觸을 통해 情緒를 일깨우고 포근함과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自然, 人工, 情緒를 作品化할 都市는 空間이 必須的이다. 제 아무리 비싼 땅이더라도 아무리 호화 住宅이라도 험고 사들여서 公共空間을 確保하고 아름다움을 投入하여 人間空間을 만드는 것이 새 秩序 새 生活의 健全한 道德社會로 復歸시키는 탄탄大路가 아닐까 생각한다.

<參考文獻>

1. 金大換 「韓國人の 民族意識」 梨大出版部, 1985.
2. 金泰吉 「韓國人の 價值觀 研究」 서울, 文音社, 1983
3. 朴東緒 「韓國官僚制度의 歷史的 研究」 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61
4. 白完基 「韓國의 行政文化」 高大出版部 1982
5. 尹泰林 「意識構造上으로 본 韓國人」 서울, 玄岩社, 1980, 1986
6. 姜信杓 「韓國文化研究」. 玄岩社, 1985
7. 林燦燮 「韓國의 社會變動과 文化變動」 玄岩社, 1984
8. 張明洙 「都市計劃」. 서울, 普成文化社, 1987
9. 金源 「都市行政論」 서울, 博文社, 1981
10. 宋丙洛 「韓國의 國土, 都市, 環境」 國土開發研究院, 1979
11. 崔相哲 「韓國都市開發論」 서울 一志社, 1981
12. 盧隆熙 「新都市開發論」 서울, 博英社, 1979
13. 康炳基, 金源, 李鍾益 共著 「都市論」 서울 法文社, 1984
14. 森好夫 「文化と 社會的 役割」 東京, 恒星社厚生閣, 1972
15. 上田 篤 「都市の 文化行政」 東京, 學陽書房, 1981
16. 上田 篤 「行政の 文化化」 東京, 學陽書房, 1981
17. 松下圭一, 森啓 「文化行政」 東京, 學陽書房, 1981

<論 文>

1. 李相禧 「大衆文化에 對한 文明批判論的 研究」 韓國의 社會와 文化, 等 1輯, 韓國 精神文化研究院, 1980
2. 金雲泰 「韓國精神文化的 斷絶과 繼承」 韓國 精神文化研究의 現況과 進路, 報告論叢 84-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3. 姜信杓 「現代韓國社會속의 朝鮮傳統文化」 上同誌 p.268
「韓國 傳統文化의 뿌리와 그 保存繼承의 問題」 同會報 228號, 1985. 10
4. 姜信杓 「近代化와 傳統文化」 思想과 政策 Vol, 1, No.4 京鄉新聞社, 1985. 9
5. 朴東緒 「새時代 行政文化의 創造와 公務 員의 行態」 國會報 等191號 國會事務處, 1970
6. 李萬甲 「文化發展과 National Identity」 文化政策에 관한 文化長官會議 三編 유네스 코主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會議, 1973. 12, 228號, 1985
7. 崔昌燮 「國民文化 先進化의 課題」 研究論 叢 83-1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8. 李重漢 「文化觸媒運動의 韓國的 擴散方 案」 文化와 藝術 104號, 1986. 4. 文藝進 興院

<西洋文獻>

1. Bourdieu, Pierre, "Cultural Reproduction and Social Reproduction J. Karabel and A. H. Halsey(eds) Power and Ideology in Education(New York;Oxford Univ. press, 1977)
2. Leslie A.White "Cuturology" in David L. Sills(9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mes(Mac Mill an Co 1974)
3. Dwight Waldo, "public Administration and Culture" Doscoe C, Martin(ed) (New York Syruacuse Univ, press, 1965 up cit)
4. Edward B, Yylor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avelopent of Method ology, philosophy Religion, Art and Custom(Lodon:John Murray 1871)
5. Clyde Kluckhohn, "Culture and Behavior (Free Press 1962)
6. Martin London "Develo pment Administra tion and Decision Theory" in E.E. weiduer (ed) Development Admini stration in Asia (Durham N, G;Duke Univ press 1970)